

# 공작원 정경학은 누구이며 노동당 35호실은 어떤 곳

직파간첩 정경학, 국적 위장하고 국내 잠입

**지난** 8월 21일 국가정보원은 필리핀 국적으로 위장한 북한 직파간첩 정경학(48)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노동당 35호실(구 대외정보조사부) 소속 공작원으로 알려진 정경학은 1996년~1998년 기간 수 차례 태국인 행세를 하며 국내에 잠입해 군 레이더기지, 미군부대, 울산원전 등 이른바 '전시 타격목표'를 촬영한 데 이어 최근 필리핀 국적으로 위장해 '재확인'을 위해 잠입하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의 체포동기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해외 귀순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북한 노동당 35호실 공작원 정 선생이 태국 여권으로 한국에 출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필리핀 국적으로 위장하고 7월 27일 국내에 들어온 남파간첩 정경학을 붙잡아 국가보안법상 간첩, 금품수수,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 18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정씨의 혐의를 밝은 국정원은 그가 출국하기 직전인 7월 31일 시내 모 호텔에서 검거하고, 필리핀 여

김인규  
데일리엔케이  
기자

권과 공작금 미화 3천188달러, 은어(陰語) CD, 신분 위장용 증명서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필리핀 현지 수사기관은 그의 필리핀 주거지에서 카메라와 보고 및 지령 송수신용 컴퓨터, 단파라디오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웅산테러와 KAL사건 주도한 35호실 조직 구조

이와 같이 외국인처럼 생긴 한국인이 버젓하게 국적을 세탁하고 남한으로 들락거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이 화해와 협력을 약속한 이후 벌어진 사건으로 시사하는 바가 사뭇 크다.

정씨는 95년 12월 태국에서 현지인으로 국적을 세탁한 뒤 1996년 3월부터 1998년 1월 사이에 국내에 3차례 잠입한 전력이 있으며, 이중 1996년 3월과 1997년 6월에는 '전시정밀타격을 위한 좌표확인' 등을 목적으로 입국했다.

그는 울산원전과 천안 성거산 공군레이더기지, 용산 미8군부대, 국방부 합참청사 촬영에 성공했고, 청와대의 경우 1996년 3월 두 차례 촬영을 시도했으나, 경비가 삼엄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6월 '남조선 장기침투 여건 조성' 지령과 함께 공작금 1만

달러를 받고 국내 장기 침투 여건을 탐색하기 위해 '켈톤' 명의의 필리핀 여권을 갖고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잠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국적 세탁을 거쳐 남파된 간첩으로는 필리핀인으로 위장해 국내 모 대학 교수로 활동하다 1996년 적발된 '무하마드 간수'와 1987년 KAL기 폭파범 김현희가 대외정보조사부 소속이었다. 잠비아주재 대사관소속 정보원으로 활동하다 귀순한 차성근씨도 작전부에서 35호실로 차출된 공작원이었다.

공작원 출신 탈북자들에 따르면 83년 이웅산테러와 85KAL사건을 주도한 35호실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직접적인 테러보다는 적대국 정보수집에 무게를 두고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남공작부서들은 각자 독자적인 대남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요 공작사안에 따라 각 부서에서 특급요원을 차출하는 방식으로 특별 공작 팀을 운영하고 있다.

남파간첩 정경학이 북한 노동당 35호실 소속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 조직의 실체와 공작원 양성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동당 산하 통일전선부, 작전부, 대외연락부와 함께 4대 대남부서로 꼽히는 35호실은 해외정보를 수집하고, 국적 세탁을 거쳐 공작원들을

남한에 투입시키는 등 제3국에서의 대남우회침투활동을 주관하고 있다.

노동당 35호실은 북한 최고권력 기관인 노동당 중앙위원회 1호 청사가 있는 평양시 중구역 창광동 창광거리에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는 김정일의 집무실을 비롯해 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간부부 등 당의 핵심 부서들이 들어서있다. 기타 대남부서들인 통일전선부·대외연락부·작전부는 모란봉구역 전승동에 위치한 3호 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1964년 노동당 중앙위 소속 조사부로 발족했으며, 1983년 작전부와 대외정보조사부(RDEI)로 분리된 데 이어 대외정보조사부는 1994년경 35호실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35호실은 김정일이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같은 작고 단단한 조직을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진 1996년 3월 5일을 기념해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35호실로 바뀐 다른 이유는 87년 858 KAL기 사건 이후 대외정보조사부의 실체가 외부에 드러나면서, 모략과 테러의 거점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진다.

공작원출신 탈북자들에 따르면 대남사업의 총설계는 통일전선부가 하고 작전부, 대외연락부, 35호실은

그 설계를 집행하는 ‘팔다리’라고 말한다. 그 중 작전부가 남파 간첩들을 파견하는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면, 35호실은 해외에 기지를 두고, 적대국들의 대북정책 탐지, 대남정보수집 및 간첩침투, 테러공작을 전담하는 행동대라고 말할 수 있다.

### 대남부서 총책, 김정일 최 측근 기용

35호실의 기본 타깃은 남한과 미국, 일본 등이다. 때문에 공작원들은 3개 이상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어학 능력을 지닌 엘리트들이다.

35호실은 일본, 마카오, 홍콩 등 비수교국들에 무역상사, 통상대표부 등의 명칭으로 지사를 두고 있으며, 모스크바, 베이징, 유럽의 불가리아의 소피아,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이집트, 동남아시아의 태국 등 수교국들의 대사관, 무역대표부들에 위장 무역상사 이름을 건 지부를 두고 있다.

해외에 기지를 둔 35호실 요원들이 진행한 작품은 78년 최은희·신상옥 부부 납치사건, 83년 아웅산테러 사건, 1987년 대한항공 858KAL기 공중폭파사건 등이다.

대남부서인 통전부, 작전부, 35호실, 대외연락부 등 부서 책임자들은 김정일에게 관련업무를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따로 받는 것으로 알

려진다.

35호실 실장은 1990년부터 권희경 전 주(駐) 러시아 대사가 맡았으나, 97년 12월 러시아대사 재직 시 공금 횡령죄가 드러나 숙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희경 35호 실장이 경질되면서 실장 대리는 허명옥이 맡아오다, 2000년부터 김정일의 신임을 받아 실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허명옥은 김일성 종합대학 재학 중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중국 베이징(北京)철도대학에서 3년간 공부했으며, 귀국 후 노동당 대남부서의 하나인 사회문화부(훗날 대외연락부)에 배치되어 지도원, 부과장, 과장으로 승진했다.

1978년 신상옥, 최은희 부부와 1979년 4월 고상문 전 수도여고 교사의 납북사건은 그가 과장으로 일할 때 직접 지휘해 성공한 작전으로 알려졌다.

1980년대 말 35호실로 자리를 옮겨 부부장으로 일했고, 1992년부터 중국 상하이(上海)주재 35호실 실장(현지공작 총책)으로 2년간 근무하다 1995년경에 귀국해 부부장에 임명됐다.

두뇌회전이 빠르고 매사에 침착하며 합리적인 그는 김정일의 높은 평가를 받은 대남분야의 전문가이며 김정일과 직접 실무문제를 토의할 정도로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

다고 전해진다.

### 35호실 공작원의 선발과 훈련

공작원선발은 노동당 조직부 305호실에서 진행한다. 노동당 305호실에서 추천된 공작원대상자는 35호실 간부과에서 최종검토를 받게 된다.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외국어대학, 국제관계대학의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 속에서 사상적 각오와 가정적 환경을 검토한 후 공작원으로 선발하고 있다.

친인척 관계에서 친가는 8촌까지, 외가는 4촌까지 검증해 인척 중 해외연고자(남한, 일본, 미국, 중국 등) 중 범죄자 여부 등을 확인해 학생들을 엄선한다.

남한 공안당국에 체포된 35호실 출신 공작원들의 경우가 이를 잘 말해준다. 858KAL기 폭파범으로 체포된 김현희도 평양외국어 대학 일본어를 전공하는 과정에 공작원으로 선발되었다.

중앙당 5과 담당부서는 대학마다 영어와 일어, 중국어에 능통한 학생들을 가정토대와 주위환경을 검토하고, 근 3차 이상의 개별 담화를 한다. 이 과정에 학생은 물론 부모들에게도 당의 어떤 부서에서 간부 사업을 한다는 것을 철저한 비밀에 부치고 있다.

선발된 학생은 흔히 북한사람들이 간부와 담화에서 하는 말대로 “당에서 부르는 곳에 한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등의 초당적 결의로 통과된다.

공작원 출신 탈북자들은 “공작원 선발의 첫 번째 기준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며, 둘째 적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지적 능력 및 명석한 두뇌를 겸비하며, 셋째 상황대처에 예리하고 넷째 자폭정신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한다.

35호실 간부과에서 공작원 선발이 끝나면 김정일의 직접 결재를 받아 “○○동무는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의해 공작원으로 임명되었다”고 통보한다.

35호실 공작원들은 외국에 나가 활동하는 특성상 외국어에 능통해야 한다. 정경학의 경우, 김일성대 영어문학과 재학 중 발탁되었고, 간수는 중국 베이징대 출신으로 평양외대 아랍어과 교수로 재직할 때 각각 공작원으로 선발됐다는 점에서 어학특기자 출신이라는 점도 비슷하다.

이렇게 선발된 공작원들은 ‘김정일정치군사대학’에서 3년간 스파이 교육을 받게 되는데 주로 사상, 정보실무, 체력단련, 자본주의정치학 등을 배운다.

정경학은 1991년 9월부터 1년간 공작원 전문 양성기관인 김정일정치

군사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뒤 1993년 8월 대외정보조사부 소속 해외공작원으로 태국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남 공작원 양성기지 ‘김정일정치군사대학’

김정일정치군사대학은 노동당 대남사업요원 및 전투원(침투조)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1962년 설립된 금성정치군사대학은 당중앙위 직속 정치학교로 1992년 1월 김정일의 생일 50돌을 맞으며 ‘김정일정치군사대학’으로 개칭되었다. 35호실 소속 공작원들도 ‘김정일정치군사대학’에서 재교육을 받은 뒤 해당 단위에 배치된다.

북한에서 ‘김정일’의 이름을 딴 학교로 유일하다. 김정일정치군사대학의 커리큘럼을 보면 김일성 김정일 혁명사상과목이 40%, 신체단련과 격술, 사격 훈련이 40%, 운전 및 무전, 컴퓨터 기술교육이 20%를 차지한다.

정치사상과목은 ‘김일성혁명력사’ ‘김정일혁명력사’ ‘김일성 저작선집’ ‘김일성저작집’ 등 한 학기180여 시간 중 120시간 강의하고, 60시간을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

여' 등을 필독과제를 주어 절해고도에서 굴하지 않고 한목숨 바친 투사들의 정신을 배우도록 한다.

무엇보다 사상교양을 철저히 한다. 전투원들은 최후의 순간 '자폭'을 가장 큰 영예로 간직한다. 김정일이 대남사업을 장악하면서 '자폭론'을 하나의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철학교재에도 5장은 '혁명적 자폭관'으로 되어있다.

과거 공작원들은 모스부호를 이용해 평양과 교신해왔다. 그러나 2001년 10월부터 모스부호 교신을 중단하고 e-메일을 이용했다. 내용은 철저히 은어(隱語)를 사용했다.

정경학의 e-메일에는 "Hellen, I will go to the nam kyoung(헬렌, 나 남경으로 가겠다)"라는 영문메일이 있었는데, 이는 '본부 앞, 남한 침투 예정입'이라는 의미로 통했다고 한다.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군사훈련이다. "전투원들은 하루 밤에 40~80km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김정일의 교시에 따라 전투원들은 25~30kg의 모래배낭을 메고 40km를 3시간 만에 돌파하기, 해상 8km 돌파하기, 1주일 식량을 가지고 작은 비토(작은 구덩이)에 잠복하기, 산과 도시에서의 각종 접선방법 취득, 1대 15, 1대 20의 대결훈련을 한다.

대남공작부서에 배치돼 다시 비행기 폭파훈련, 요인암살훈련 등을 받는다. 이러한 훈련들이 모두 끝나면 전투원, 공작원 등의 임무를 부여받고 대남공작에 투입된다.

## 현지 적응 위해 훈련 후 해외로 이동

공작원들에 대한 1차적인 교육이 끝나면 해외 연수식으로 중국 광둥, 홍콩, 마카오, 유럽 등지에 파견하여 수개월씩 언어훈련과 자본주의 사회체험을 하도록 한다.

현지에 능란하게 적응시키기 위해 단기별로 아랍권과, 아시아권, 유럽권으로 자주 옮기도록 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그 나라 주재 북한 대사관과 무역사무소를 비롯한 첩보기관들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다.

공작원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로 주위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것이다. 낮에 초대소 문밖을 나설 수 없으며, 공급원, 운전수 등 외부인원과 절대로 교체할 수 없다. 외출시에도 선글라스와 마스크, 우산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작원교육을 받는 동안 안면노출은 물론 음성까지 노출시키지 않도록 말과 질문을 일체 하지 못하며 일방적으로 강의만을 듣도록 하고 있다. 행군 도중 타 공작원과 조우할 때도 얼굴노출을 피하기 위해

우산을 펴들고 앞을 가리도록 한다.

각종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공작원으로 임명되면 상부에서 맡겨주는 공작임무에 대한 작전계획과 활동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세워 검토를 받은 뒤 내부 리허설을 통과하면 곧바로 해외에 파견된다.

적대국 잠입을 위해 우선 동남아시아 국가 등 적대국이 아닌 나라에서 활동하면서 수 차례 적대국에 들어가 정보수집활동을 벌이고, 최종적으로 고정잠입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 공작원들은 국적 세탁을 통해 일본인이나, 중국인, 태국인으로 필리핀인으로 위장해 해외여행은 물론 남한에도 들락거리고 있다.

간수는 연세대 한국어학당 입학 명분으로, 정경학은 관광 목적 등으로 국내에 들어왔다. 간수는 1979년 레바논에 이어 1984년 필리핀에서 국적을 취득했고, 정경학은 1993년 방글라데시를 시작으로 1995년 태국, 2000년 중국, 2004년 필리핀 등 모두 4곳에서 국적을 세탁, 두 명 모두 필리핀 국적을 가진 유사점도 있다.

국적 세탁 대상국가는 주로 중국의 하이룽장성, 내몽고 등 주민등록 체계가 취약한 곳이다. 정경학의 경우, 1993년 1월 35호실로부터 신분세탁이 용이한 방글라데시 침투를 지시 받고 다카에 도착한 뒤 관광안

내원의 여권신청서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위조여권을 발급받았지만, 언어가 다르고 외모 차이도 많아 현지정착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공작원 침투-국적세탁, “여 공작원은 결혼까지 각오해야”

그는 1999년 2월 자신의 신분을 알던 태국 주재 북한 대사관 외교관이 망명하자 신분노출을 우려해 평양에 복귀했다. 그 후 베이징으로 다시 나가 브로커를 통해 내몽고 자치주 출신의 ‘이용’ 명의의 공민증을 1천 달러를 주고 사들여 다시 한번 국적을 세탁하기도 했다.

여성 공작원들의 경우, 해외침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외국인과 결혼하도록 하는 교육도 받고 있다. 당의 요구라면 마음 없는 결혼도 불사해야 하는 것이 공작원들의 당에 대한 충실성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적대국에 직접 파견되어 단독활동을 벌이는 ‘직파조’는 변절을 우려해 가족동반 없이 단독으로 파견되며, 외국인 포섭활동을 전문으로 벌이는 ‘합법활동조’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이들은 자기명함을 위장하고, 북한대사관이나 무역회사, 국제기구에 체류하면서 정보수집과 포섭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北韓**